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 편년

- 일시 : 12월 7일(금) 10:00~
- 장소 : 상주박물관 세미나동
- 주최 : 한국청동기학회
- 후원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울산문화재 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12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발표대회 일정

개 회

10:00~10:20 접 수

10:20~10:30 개회사 안 재 호 (한국청동기학회장)

 축 사 전 옥 연 (상주박물관장)

기조강연

10:30 ~ 10:55 청동기시대 편년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영문(목포대학교 고고학과)

주제발표

【오전발표】

11:00~11:20 제1발표 강원 영동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11:20~11:40 제2발표 강원 영서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김권중(충부고고학연구소)

11:40~12:00 제3발표 경기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강병학(충부고고학연구소)

12:00~13:00 중 식

【오후발표】

13:00~13:20 제4발표 충청 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나건주(충남대학교 고고학과)

13:20~13:40 제5발표 충청 남동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공민규(한국고고환경연구소)

13:40~14:00 제6발표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 하진호(영남문화재단연구원)

14:00~14:20 제7발표 남강유역 초기-전기 편년 김병섭(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4:20~14:30 휴 식

14:30~14:50 제8발표 동남해안지역(경주-포항-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년 김현식(울산문화재단연구원)

14:50~15:10 제9발표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 양영주(전북문화재단연구원)

15:10~15:30 제10발표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문화의 변천과정 홍밝음((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15:30~15:40 휴식 및 장내정리

【종합토론】 15:40~17:40

발표자, 지정토론자 : 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 허의행(한국고고환경연구소)

 천선행(전북대학교 BK21), 김규정(전북문화재단연구원)

 배진성(부산대학교 고고학과)

17:40 ~ 총 회

목 차

기조강연

1. 청동기시대 편년연구의 현황과 과제 / 이영문(목포대학교 고고학과) 7

주제발표

1. 강원 영동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19
2. 강원 영서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33
3. 경기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 강병학(중부고고학연구소) 59
4. 충청 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 나건주(충남대학교 고고학과) 105
5. 충청 남동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 공민규(한국고고환경연구소) 139
6.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 / 하진호(영남문화재연구원) 171
7. 남강유역 초기-전기 편년 / 김병섭(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3
8. 동남해안지역(경주-포항-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년 / 김현식(울산문화재연구원) 233
9.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 / 양영주(전북문화재연구원) 243
10.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문화의 변천과정 / 홍밝음((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267

토 론

1. 중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초기-전기문화 편년에 대한 토론문
/ 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 299
2. <충청 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나건주>, <충청 남동지역의 초기~전기 편년-공민규> 토론문 / 허의행(한국고고환경연구소) 304
3. 대구-남강-동남해안지역 조·전기 편년 및 병행관계 토론문
/ 천선행(전북대학교 BK21) 308
4.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에 대한 토론 /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313
5.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한 토론 /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314
6. 북한을 포함한 광역편년을 향하여 / 배진성(부산대학교 고고학과) 315

기초강연

청동기시대 편년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 영 문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청동기시대의 설정은 해방 이후 한국고고학에서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전후부터이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말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남한에서는 1964년이다. 한국의 청동기시대의 연구는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시대의 연구보다도 활발한 발굴과 분야별 연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1980년대 대규모 지석묘 발굴, 1990년대 전국 각지의 대규모 주거지 발굴, 2000년대 이후 주거 분묘, 생산 복합유적, 제사관련 유적 등 새로운 자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견해 차이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청동기시대 하면 바로 무문토기시대 또는 무문토기문화로 비판없이 받아들여지면서 이해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와 문화의 기원 문제에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 무문토기, 비파형동검, 세형동검문화를 제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시대 개념문제가 정립되지 못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본 글은 앞으로의 편년문제의 연구과제와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본 것이다. 이는 필자가 평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I. 청동기시대 편년연구의 현황

1. 청동기시대 개념과 설정과정

1) 청동기시대 개념문제

청동기시대의 개념 설정은 고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간적인 편년문제와 공간적인 범위 및 사회적인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국청동기학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 ‘한국 청동

기시대와 그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연구'라고 하였다. 당시 무문토기를 비롯하여 세형동검문화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동기시대의 개념 설정에는 다음 4가지의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청동기 생산과 사용된 시기

이는 청동기의 유입이 아니라 청동기가 존재한 증거 즉 주동이 시작된 단계로 용범, 채광유적, 주동유적 등 적극적인 증거나 청동 자체의 성분분석을 통한 증거가 있는 시기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둘째, 청동기 생산을 통한 인류문화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하게 된 시기

셋째, 청동기라는 물질문화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킨 시기

예를 들어 교역, 분업, 동물력에 의한 농경, 도시·문명·국가의 발생, 세습적인 신분제, 문자의 사용, 정복전쟁 등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자는 견해.

넷째, 한국 청동기시대에 나타난 특징적 문화요소로 보자는 견해

이는 무문토기의 출현, 마제석기의 보편적인 사용, 농경 도구로 확인되는 농경의 보편화, 취락의 형성, 새로운 묘제의 출현, 청동기의 제작사용 등 이 시기의 특징지어지는 문화로 보자는 견해이다.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청동기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무문토기를 사용한 시기를 포함하여 청동기시대로 설정한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견으로는 무문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견, 무문토기와 비파형동검문화와는 계통적으로 다르다는 이견, 무문토기가 초기철기시대까지 사용되는 점과 용어상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들은 한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이 지역적인 다양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데 있다.

청동기시대의 표지유물로는 청동기와 무문토기가 있다. 이에 따라 학자의 견해가 다르다. 청동기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청동기가 유입되는 시점으로 볼 것인지, 청동기가 제작 생산되는 시점으로 볼 것인지의 두 측면이 있다. 무문토기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는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한 연대 등 편년에도 차이가 있다. 무문토기 문화의 성격에 따라 청동기시대를 파악하는 것이 학계의 주류이다.

2) 청동기시대 설정과정

한국 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란 용어는 196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까지는 해방이전 마석기시대(磨石器時代), 해방 이후 김해패총을 발굴한 후 석기에서 청동

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기를 사용한 시기로 보고 금석병용기(金石併用期)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청동기시대를 논하는 계기는 즐문토기와 성격이 전혀 다른 무문토기가 층위를 달리 하여 발견됨으로 해서 북한에서 청동기시대의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1957년에 발굴된 황해 지탑리 유적으로 즐문토기 말기에 청동기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지석묘와 팽이형토기(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를 청동기시대로 편년하였다. 남한에서는 1964년 김원용에 의해 북한의 신자료를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의 설정은 그 후 1967년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란 저서와 1973년 김원용의 '한국고고학개설'에서 청동기시대를 설정함으로써 해서 학계에서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청동기시대와 더불어 고조선문화, 청동기문화, 무문토기문화, 무문토기시대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나 문화 개념문제는 앞으로 논의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들이다.

2. 청동기시대 시기구분 문제

고고학에서 시대구분과 각 시대의 시기구분(편년)은 시대의 흐름과 그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시대구분은 커다란 문화의 변화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기구분은 한 시대안에서의 작은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한국고고학에서 시대구분 문제에 대해서는 1979년 김정배에 의해 삼시기법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시대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논의된 바 없이 청동기시대라 사용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2시기와 3시기, 그리고 4시기로 분류하고 있다.

2시기로 분류한 경우는, 청동기를 중심으로 한 전기의 비파형동검문화와 후기의 세형동검문화로 보는 것이 대세이며, 토기를 중심으로 한 전기는 공열토기, 각형토기, 홍도 등 토기와 마제석기류가 공반된 시기, 후기는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외반구연토기 등 토기류와 일부 석기들이 출토하는 시기로 분류하고 있다.

3시기로 보는 경우는 비파형동검 이전 시기를 설정한 경우와 소위 송국리문화를 중기로 설정한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돌대문토기를 조기로 편년하고, 중기로 편년한 송국리문화 단계를 후기로 한 것이다. 2기에서 후기로 본 점토대토기문화를 초기철기시대로 보고자 한 것이다.

4시기로 보는 것은 비파형동검시기를 이전 시기에 비파형동검 문화를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고 세형동검시기를 구분한 것과, 토기에서 전·중·후기에 앞서 발생기(또는 조기)를 설정

한 것으로 나뉘어진다. 최근에는 조기-전기-중기(송국리문화 단계)-후기(점토대토기 문화 단계)로 하지는 의견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학자간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짙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조기 설정이다. 돌대문토기 단계를 조기로 편년하는 것이 널리 애용되지만 최근 들어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공존 유적이 증가하면서 조기설정에 신중론이 재기되고 있다.

둘째, 송국리문화를 어느 시기로 설정할 것이냐 이다. 기존의 중기설을 고수할 것이냐, 후기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점토대토기단계 문화를 포함할 것이냐 이다. 이 단계를 후기로 포함하는 경우와 초기철기시대라 보는 경향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은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있어 1980년 이전까지는 전·후기로만 분류하던 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파형동검문화의 전 단계를 설정하거나 비파형동검문화를 전·후기로 구분하였으며, 80년대 후반부터는 남부지방에 광범위하게 퍼진 송국리문화를 중기로 설정하고 있다. 2000년 이후는 조기를 설정하면서 송국리문화를 중기로 할 것인가, 후기로 할 것인가에 따라 3시기나 4시기로 편년되고, 점토대토기단계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3. 청동기시대 연대 설정과정

청동기시대의 개시연대는 다양한 설이 있다. 1972년 요녕지방 청동기문화에서 동검, 동부가 카라스크 문화와 관련한 점과 은·주교체가 기원전 1000년대임을 들어 기원전 1000년기 초설, 요녕지방에서 비파형동검이 춘추초기 유물과 반출된 점을 들어 예맥족의 문화로 보고 기원전 8-9세기에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600-700년설, 한국의 석관묘가 카라스크 석관묘와 같은 계통임을 들어 기원전 1300년설, 세형동검이 사용된 시기를 청동기시대로 보아 기원전 1000년기 중반설, 요녕지방의 청동기문화와 관련하여 기원전 1000년설, 비파형동검과 선형동부가 춘추 초의 유물과 반출되는 요녕지방 청동기시대의 연대를 들어 기원전 1000년대 초로 보는 견해, 무문토기 유적의 C-14년대 측정법에 의해 기원전 1300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청동기시대의 연대는 타가르문화와 관련하여 기원전 700년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것과 절대연대의 불신에서 9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정체된 연대관이었고, 신석기시대 하한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한국고고학의 편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90년대 이후 조사가 활성화되고 절대연대 측정치들이 많이 확보되면서 대체적인 시대편년과 시기구분안에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청동기시대의 상한을 기원 2000년설과 1500년 설이 있고, 하한은 기원전 400년 전후한 시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기를 기원전 1300-900년, 중기를 800-400년이라는 큰 틀은 마련되었다.

II. 청동기시대 편년연구의 과제

1. 청동기시대 연구의 공간적 범위 문제

청동기시대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문제는 연대문제와 문화권(영역권), 종족문제까지 결부된다. 현재의 한국(남한)이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나 중국의 동북지역까지 포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을 포함할 경우 현실적으로 북한지역의 관련자료 정보가 거의 없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중국의 고고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그 지역은 공백으로 남아있게 된다. 중국 동북지역을 포함한 경우도 그 지역의 관련 자료도 매우 제한적이며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내로 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기원문제나 문화요소의 관련성에서 중국 동북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원형점토대토기나 동검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중국 동북지역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비파형동검이 나오는 지역을 포함하여 고조선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남한에서는 양론이 있다. 우리나라 청동기문화가 요령지방의 청동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에 이론이 거의 없지만 한반도의 독자적인 세형동검문화를 진정한 한국 청동기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오면 다양한 지역문화가 존재하게 된다. 청천강 이북과 요령지방에서는 비파형동검과 미송리식토기문화, 한반도 서북지방에서는 각형토기문화, 동북지방에서는 공열토기문화, 한강유역과 그 이남에서는 양 지역의 영향을 받아 혼합된 토기문화, 서남부지역에서는 송국리식토기문화, 남해안지역에서는 지식묘와 비파형동검문화 등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크게 보면 비파형동검이라는 유물은 요령, 길림, 한반도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지역에서는 청동기보다는 석기문화가 유행하고, 요령지방에서는 청동기문화가 성행한 반면에 길림지역에서는 청동기문화와 석기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현실

에서 볼 때 세 지역 상호간에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각 지역적인 문화의 변천과정이나 사회적인 변화에서 동질성 여부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동기시대 연구는 현 행정구역 단위로 분석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어떤 문화가 산천을 경계로 형성 발전된다는 일반적이라는 인식에 배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을 경계로 하는 충남과 전북의 서해안지역은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연구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회 차원에서 강유역과 산맥을 경계로 하는 연구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앞으로의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절실하다고 하겠다.

2. 청동기시대 조기 설정 문제

청동기시대의 시작과 관련한 시기구분에 있어서 주요 논쟁은 조기를 인정할 것인가, 전기 속에서 이른 단계로 설정할 것인지이다.

조기를 부정하는 측면은 조기의 문화내용과 전기의 문화내용(토기, 주거형태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인데, 돌대문토기요소 뿐만 아니라 이중구연(단사선문)이나 공열문 요소도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전기의 역삼동·가락동·혼암리유형 등의 요소와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물질 문화가 등장하는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즉, 조기 문화 내용에 있어 지역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 지역에 최초로 등장하는 새로운 물질문화를 조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 성과로 볼 때 신석기시대 말기의 문화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신석기시대와 완전하게 구분되고 전체적인 맥락(사회의 변혁)에서 볼 때 돌대문토기단계부터 청동기시대로 인식하자는 것인데, 신석기시대와는 단절적인 경향이 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교체설 등이 있지만 앞으로 조사와 연구 성과에 의해 그 공백기가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3. 청동기시대 후기 설정 문제

한국 청동기시대의 하한문제는 점토대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이 문제이다. 즉 청동기시대의 연속선상에 둘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신문화(철기)의 등장으로 보고 초기철기시대로 볼 것이냐 이다. 연속선상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송국리식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절대연대상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중기인 송국리문화와 상당기간 공존하고 있어 후기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형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과

의 관계에 있어 서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유입 가능성 있기 때문에 철기가 공반하지 않는 원형점토대토기까지를 청동기시대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나 한강유역의 사례로 보면 일찍부터 원형점토대 토기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후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원형점토대토기 집단은 확실한 외부집단이고 생업적 차이도 분명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또 원형점토대토기 집단이 송국리식토기 집단과 공존 기간 길지 않으며, 송국리식 주거지내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예는 충청서해안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이는 유입기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점토대토기 문화의 등장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재지민은 여전히 청동기시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문화가 사회의 큰 변혁을 가지고 왔다고 보기 어렵고, 재지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기원전 2세기경 이후에 철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라는 명칭은 철기시대 초기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철기시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청동기시대 후기를 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를 내는 순수한 청동기유적을 청동기시대에 포함시키고, 철기가 공반되는 시기를 철기시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청동기시대 후기의 설정은 다른 시기에 비해 사회 변화가 급변한 시기이어서 많은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기존 연대관과 전파론적 편년의 문제

한국 청동기시대의 문화는 북방이나 요령지방의 청동기문화의 영향과 그 문화의 전파되어 형성되었다는 가정에서 이해하고 있다. 기원지가 어디냐에 따라 연대가 달라지고, 지역의 원근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기를 설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무문토기 문화가 북한에서 한강유역을 거쳐 남부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남해안지역을 늦은 시기로 편년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의 연대도 기원전 8세기로 설정하는 등 전파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파론적인 이해에 앞서 당시의 문화 전파 경로과정도 지형이라든가 그전 단계의 문화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즉 전파경로에서 바다냐, 강이나, 평지냐, 산악지역이냐에 따라 전파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전통적인 재지문화가 강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집단 이주의 경우 약한 지역에 먼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연대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파형동검의 경우 기원전 800년을 전후한 시기로, 세형동검도 기원전 400년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요령지방 청동기와 관련시켜서 그

연대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파형동검의 경우 전기의 특징 유물인 이중구연단 사선문토기나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등과 공반 사례가 많고, 절대연대치도 상향되는 사례가 많다. 이로 보아 적어도 기원전 900년을 상회하고 있다. 기존 동일한 문화로 보던 다른 문화 요소들은 200년 이상 상회하는 경향과도 비교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토된 유물의 편년과 연대는 한국고고학 연구 토대 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또 고착된 연대관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예를 들어 석검의 경우 이단병식은 전기, 일단병식과 유경식은 중기로 편년하는 경향이다. 일단병식 석검 중에서 유단병은 전기 주거지에서만 출토되고, 유절병은 중기 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어, 주거지 편년으로 보면 확실하게 연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주거지 연대와 무덤 출토 석검의 연대관에서 서로 다른 견해로 접근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연구의 편년은 토기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 편년안이 현재로서 가장 설득력 있고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이고, 모든 형식의 석검이 전기 주거지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III. 청동기시대 연구의 한계와 과제

앞에서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이 지니고 있는 논쟁과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앞으로의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서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1. ‘청동기시대’의 명칭에 대한 고민

청동기시대에서 한국 청동기문화의 최성기인 세형동검문화를 제외한다면 시대 명칭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 시대 명칭으로 인하여 시기구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구분이나 시기구분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즉 기술적인 도구발전에 따른 삼시기법, 사회 경제적인 구분, 사회발전단계, 문화변천에 따른 시대구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문헌상의 ‘국’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삼시대법에 의해 명명된 ‘청동기시대’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사회 경제적 측면과 문화발전단계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청동기시대를 도시혁명(Childe), 문명의 시작(장광직), 미생시대(일본), 상주시대(중국) 등 다양한 시대명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고조선’실에는 비파형동검 등이 전시되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된다.

2. 청동기시대 편년 문제의 기본 인식

한 시대의 문화는 새로운 문화요소의 수용 또는 유입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 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최성기를 맞이하면서 그 후로 쇠퇴하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면서 소멸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이를 토대로 하면

발생기(조기, 신석기문화 쇠퇴와 무문토기문화 등장시기)

성장기(전기, 형성기, 문화요소 통합, 유물 복합상)

성행기(중기, 지역문화 형성기, 자체 발생, 외부 영향)

쇠퇴기(후기, 강력한 외부 영향, 청동기문화 성행기)

소멸기(만기, 철기 등장, 소국 형성기) 라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청동기시대 관련 용어문제

용어의 선택과 사용은 학자의 학문적인 관점나 선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연구자의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용어의 기준에는 시대를 반영하는 명칭, 형태의 명칭, 지역의 명칭, 기술적인 특징의 명칭, 기능(용도)에 의한 명칭 등이 있을 수 있다. 청동기시대 관련 용어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식, ○○형이라 붙여 경쟁하듯이 신조어를 양상하고 있다. 같은 분야의 전공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이다. 전공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가급적 자제하고, 다른 전공자나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명보다는 형태나 기술적인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지식묘의 경우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으로 하면 형태명으로 통일되나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으로 하면 지역과 형태에 따른 용어로 일관성이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탁자식하면 연상되는 형태이지만 북방식하면 전공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된다. 같은 구조를 가진 묘역 시설의 경우도 묘역식, 묘역지석묘, 용담식 지식묘 등 매우 혼동스러운 점이 있다. 유물에서도 예를 들어 동북형석도 대신에 ㄱ자형 석도 하면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 지역명으로 애용하고 있는 송국리식토기의 경우 외반구연(호형)토기로 한다면 기술적 명칭인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나 공열토기와 함께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송국리형이나 송국리식이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용어의 통일이 어렵다면 지역명에는 ○○식(요령식, 북방식, 송국리식 등), 형태명에는 ○○형(비과형, 탁자형 등)이라도 통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동기시대 관련 용어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 용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학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절대연대 자료 활용과 고고학적 분석 방법 응용

청동기시대 편년은 절대연대와 형식학 등 고고학적 방법 등으로 대체적인 시기구분과 연대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서부지역 실연대 즉 절대연대로 보면 조기는 기원전 1,500년-1,100년(미사리유형), 전기는 기원전 1,300-800년(가락동유형 기원전 1,300-900년, 역삼동유형 기원전 1,200-800년), 중기는 기원전 800-400년(송국리유형), 후기는 기원전 600-400년(수석리유형, 원형점토대토기)이라는 측정치가 있다. 위에서 보면 많게는 200년 정도가 공존한 결과를 보이지만 대체적인 편년안은 마련된 셈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의 변천은 전후의 다른 문화들이 상당히 공존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추세는 절대연대를 감안한 편년안이 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절대연대에 대한 불신은 상존하지만 현재까지 시기구분 연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 그렇다면 다양한 고고학적 연대 결정방법을 통해 접근한다면 세분된 편년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